

의류제품의 형태안정가공에 관한 실태 및 소비자의식

권오경¹⁾ · 손부현¹⁾ · 최현숙²⁾ · 김태규³⁾

1) 경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2)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3) 양산대학 패션디자인과

The Research on the Consumer Consciousness and the Actual Condition of Shape Retention Finished Clothing

Oh Kyung Kwon¹⁾, Bu Hun Son¹⁾, Hyun Suk Choi²⁾ and Tae Kyu Kim³⁾

1) Dept. of Clothing and Design, Kyungil University, Kyungsan, Korea

2)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of Teagu-Hyosung, Kyungsan, Korea

3) Dept. of Fashion Design, Yangsan College, Yangsan, Korea

Abstract : The aims of this research were to suppose the basic data to the producer for more useful manufactures production. 700 pieces of questionnaire were made and 552 pieces of questionnaire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 Many consumers feel uncomfortable to using the unfinished clothing and by the point we could expect the shape retention finish has great possibilities. Just half percent of the people knew about the shape retention finish. So the producer have to do more advertisement for the shape retention finishing and functions. Generally the consumers are satisfied with the shape retention finished clothing.

Key words: consumer consciousness, clothing, questionnaire, shape retention

1. 서 론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풍요로운 문화생활로 모든 제품에 있어 그 요구성능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의류제품에 있어서도 제품의 질적 요구도는 높아져 섬유 고유성능만을 살린 제품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소비자에 있어 의복은 인체에 편안함을 주어야 하며, 외관상으로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써 인체에 직접 닿는 소재의 중요성도 크지만 외관상의 형태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의복 소재에 대한 다양한 가공이 연구되었으며, 최근 형태안정가공이 각광을 받고 있다. 형태안정가공이란 착용시의 방추성이나 세탁에 따른 방축성, 형무너짐방지 와 다림질이 필요없게 하는 가공(山崎, 1995)으로 세탁 후에도 그 형태가 처음과 같이 유지되게 하는 가공을 말한다. 형태안정가공의 대표적인 방법에는 샌프라이즈 가공, W&W 가공, P·P 가공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가공들은 폴리에스테르의 보급과 더불어 급속히 발달하게 되었다(MODERN TEXTILE, 1995). 형태안정가공으로 처리된 의복은 외관뿐만 아니라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바쁜 생활 패턴 속에, 캐주얼웨어에서 정장에 이르기까지, 이지케어성을 살린 소재의 제품은 소비자의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의 경우 형상기억소재 상품의 판매량이 매년 10% 이상 증가되는 현상(MODERN TEXTILE, 1995)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와이셔츠 전체의 60%가 형태안정가공 셔츠로 와이셔츠의 기본적인 가공방법으로 정착되었으며(한국섬유개발연구원, 1999), 시장 점유율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塩原, 1994). 국내의 경우는 1999년 2월 기준, 생산되고 있는 형태안정가공의 셔츠는 4%정도에 지나지 않아(한국섬유개발연구원, 1999) 아직까지는 그 비율이 적지만, 가부장적인 사회구조가 강한 점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향후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형태안정가공은 영국의 Tootal Bradurst Lee사가 1926년에 면수지가공을 발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日比, 1994). 1956년 미니케어법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건(乾)주름방지성이 습(濕)주름방지성보다 뒤떨어졌으나 미니케어법 이후 1960년대에는 W&W가공이 개발되면서 건·습시의 주름방지성이 균형있게 되면서 세탁후 다림질이 크게 감소되었다(한국섬유개발연구원, 1999). 1964년 이후에는 듀어러블프레스(durable press)가공이 개발되어 세탁후 다림질없이 착용할 수 있게 되었다(日比, 1994).

Corresponding author; Oh Kyung Kwon
Tel. +82-53-850-7514, Fax. +82-53-850-7620
E-mail: okkwon@bear.kyungil.ac.kr

또한 미국의 상업세탁기업체 아메리칸 텍스타일 프로세싱(ATP)사와 Toyobo, Unitika, Fuji 방직의 3사 라이선스 계획에 따른 VP(주름방지, 오그라드는 것 등의 형태안정을 위한 기체 포르말린 가공), 일본의 SSP(슈퍼소프트 피치페이스)가 있다. 가공방법에는 크게 분류하여 원단단계에서 가공하는 Pre-cure 방식과 봉제 후에 처리하는 Post-cure 방식이 있으며(山本, 1994), 최근의 형태안정가공은 Pre-cure 방식보다는 Post-cure 방식이 대부분의 물성평가시험결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노덕길, 1995). 이러한 형태안정가공은 다른 제품보다 유행에 덜 민감한 와이셔츠에서 캐주얼웨어의 자켓, 교복, 신사용 바지, 스커트, 작업복에 이르는 모든 소재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형태안정가공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제품에 관한 소비자의식과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소비자의 생활에 보다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구지역 중심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1998년 9월~11월에 걸쳐 설문지는 70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560부 중 그 대답이 충실하지 못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552부를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일반사항, 의류제품의 착용상황, 세탁 및 다림질 등 의류제품의 관리, 의류제품의 형태유지를 위하여 행한 가공에 대한 사항, 미래의 의류소재에 대한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은 연령, 성별, 직업, 주거지, 동거 가족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의류제품의 착용상황에 대한 사항은 평일과 휴일에 대한 착용 빈도로 구성하였다.

세탁, 다림질 등 의류제품의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는 세탁하는 사람, 주된 세탁방법, 세탁 기기, 기본 의류에 대한 세탁 및 건조방법, 세탁후 구김에 대한 느낌과 다림질 여부, 다림질하는 의복 종류, 다림질을 하는 사람, 다림질의 부담 여부, 다림질의 기준, 기본 의류 및 각종 의복 부분 중 다림질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등의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류제품의 형태유지를 위하여 행한 가공에 대한 사항으로는 특수가공의 인식 여부 및 알고있는 가공명, 가공이름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형태유지가공을 행한 의류제품의 착용경험 여부, 착용해 본 의류제품, 구입장소, 가격, 상표 및 제조회사명, 제품의 세탁 방법, 효과, 가격의 적합성, 일반 제품과의 적정 가격차, 가공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의류제품 등의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류소재, 가공법, 형태, 착용방법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사항과 기대사항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조사대상자의 기본 속성

조사대상자의 기본 속성을 연령별, 성별, 주거지별, 직업별로

분류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연령별 분류에서는 2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성별에서는 여성이 66%를 나타내고 있다. 주거지의 분류에서는 대구지역에 살고있는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직업별 분류에서는 대학생이 전체의 55.4%를 보이고 있다.

3.2. 섬유제품의 착용 상황

블라우스, Y셔츠(남방), 스포츠 셔츠, T셔츠를 기본으로 한 상의에 대한 평일과 휴일에 따른 착용 상황을 Fig. 1에 나타내었다. T셔츠의 착용이 평일과 휴일에 각각 58%와 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의 상당수가 사회성이 낮은 대학생이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T셔츠 다음으로는 평일에 Y셔츠를, 휴일에 스포츠셔츠를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섬유제품의 세탁방법과 세탁후의 관리

세탁은 누가 합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전체 562명중 236명이 본인이 직접 세탁한다고 답하여 45%를 보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가 55%를 보였다. 이하 세탁에 관계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세탁을 본인이 직접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실시하였다.

의복 종류(블라우스, Y셔츠, 스포츠 셔츠, T셔츠)에 따른 세탁 장소에 대한 질문에서는 블라우스만 27%정도가 세탁업소에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	Number(%)
Age	Teenager	60(10.9%)
	Twenties	368(66.7%)
	Thirties	22(4.0%)
	Forties	56(10.1%)
	Fifties	42(7.6%)
	Over sixties	4(0.7%)
Sex	Male	188(34%)
	Female	364(66%)
District	Taegu	404(73.2%)
	Pusan	2(0.3%)
	Kyungbuk	138(25%)
	Kyungnam	4(0.7%)
	Others	4(0.7%)
Occupation	High school student	42(7.6%)
	University student	306(55.4%)
	Graduate school student	6(1.1%)
	House wife	78(12.3%)
	Company Employee	50(9.1%)
	Business(trade)	18(3.3%)
	Business(manufacture)	4(0.7%)
	Agriculture	4(0.7%)
	Teacher	6(1.2%)
	The board	8(1.5%)
	Free worker	10(1.8%)
	Others	3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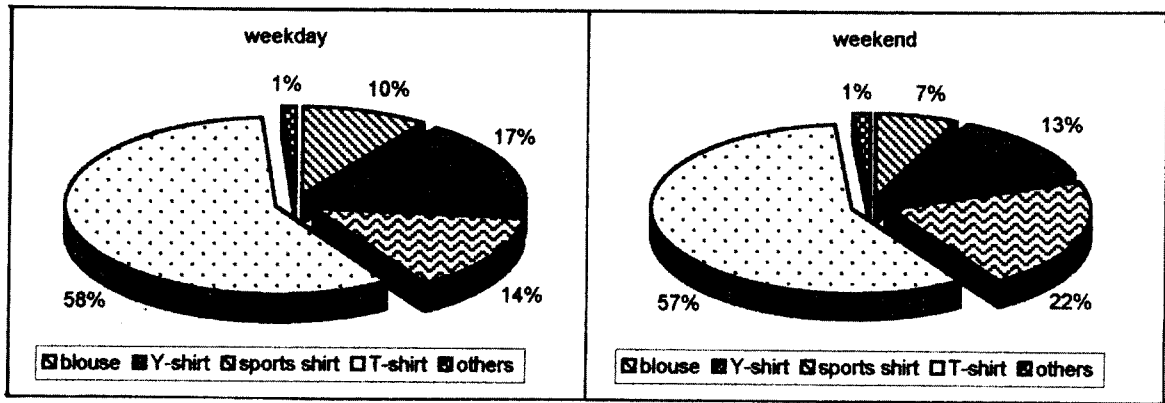


Fig. 1. The wearing clothes of weekday and week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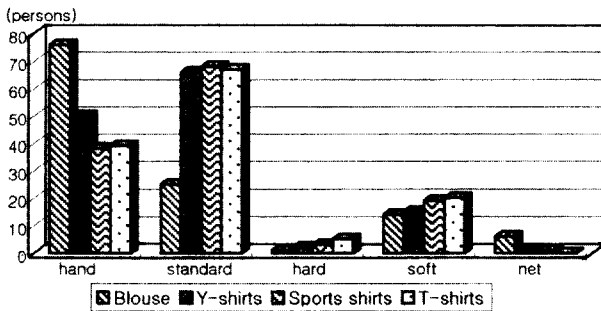


Fig. 2. Washing metho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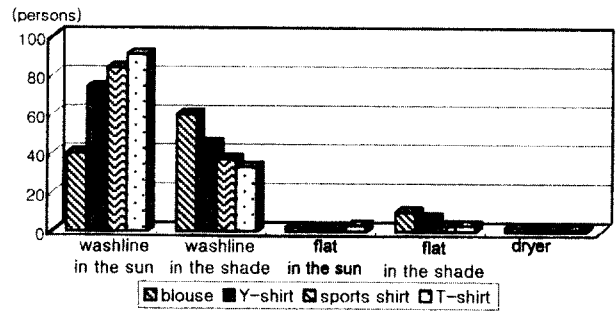


Fig. 3. Drying methods.

서 세탁을 하고 다른 의복에 있어서는 거의가 가정에서 세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세탁에 있어서는 세탁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블라우스의 경우 손세탁이 가장 많았으며, 일부는 네트를 사용한 세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Y셔츠(남방), 스포츠 셔츠, T셔츠의 경우에는 표준 세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트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세탁후의 건조방법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햇빛에 건조대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블라우스의 경우에만 그늘에서 건조시킨다고 응답한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3). 이는 블라우스의 소재가 다른 의복에 비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세탁후의 구김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 552명 중 434명(79%)이 '신경이 쓰인다'고 응답하여 형태안정가공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구김이 있는 의복에 있어서는 다림질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 인원 중 480명(87%)이 다림질을 한다고 대답하였으며, 72명(13%)은 다림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위의 설문 내용인 주름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9%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일부 소비자는 주름에 대해 신경은 쓰지 않지만 다림질은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림질을 한다는 응답자에 대해서 실제 다림질을 하는 의복 종류를 조사한 결과, Y셔츠(남방), 블라우스, 자켓, 스커트, 바지 등을 주로 다림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림질에 대한 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체의 69%가 다림질에 대해 부담스러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다림질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의복 종류에 따라 다림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림질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을 칼라부분, 어깨 솔기 앞부분, 어깨 솔기 뒷부분, 커프스로 구분하여 조사해 본 결과, 블라우스와 와이셔츠는 어깨 솔기 앞부분과 커프스가 다림질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셔츠의 경우에는 칼라, 솔기 앞·뒷부분이 모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T셔츠의 경우에는 칼라부분과 어깨 솔기 앞부분이 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소재의 형태안정가공은 대부분의 의복에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다림질이 어려운 부위에 있어서의 그 요구도는 크다고 할 수 있다.

Fig. 4는 위의 4가지 기본 의류 품목을 제외한 다른 의복에서 다림질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위를 보인것으로서, 각 부분에서 프릴(frill)이 가장 다림질이 어려운 부분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개더(gather)부분과 단추가 있는 부분, 포켓, 플리즈, 플라이프런트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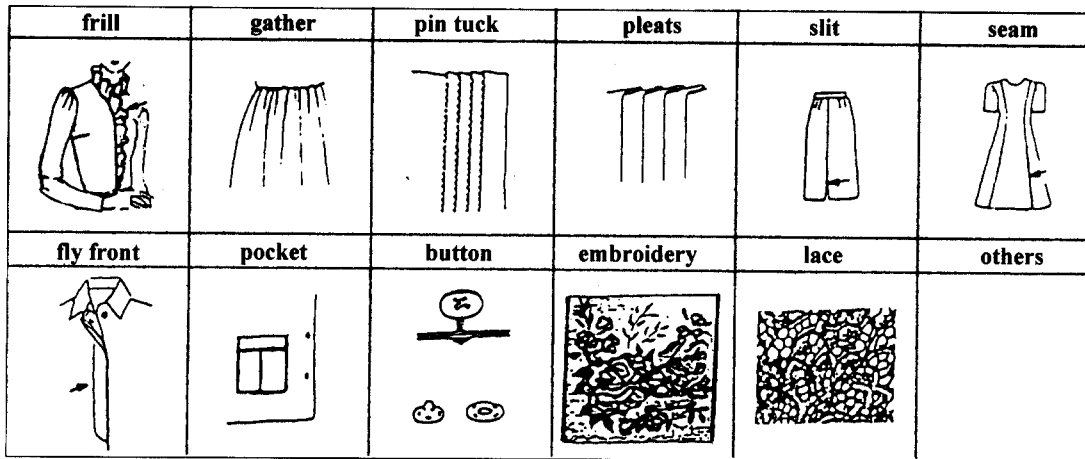


Fig. 4. Difficult parts of clothes to ir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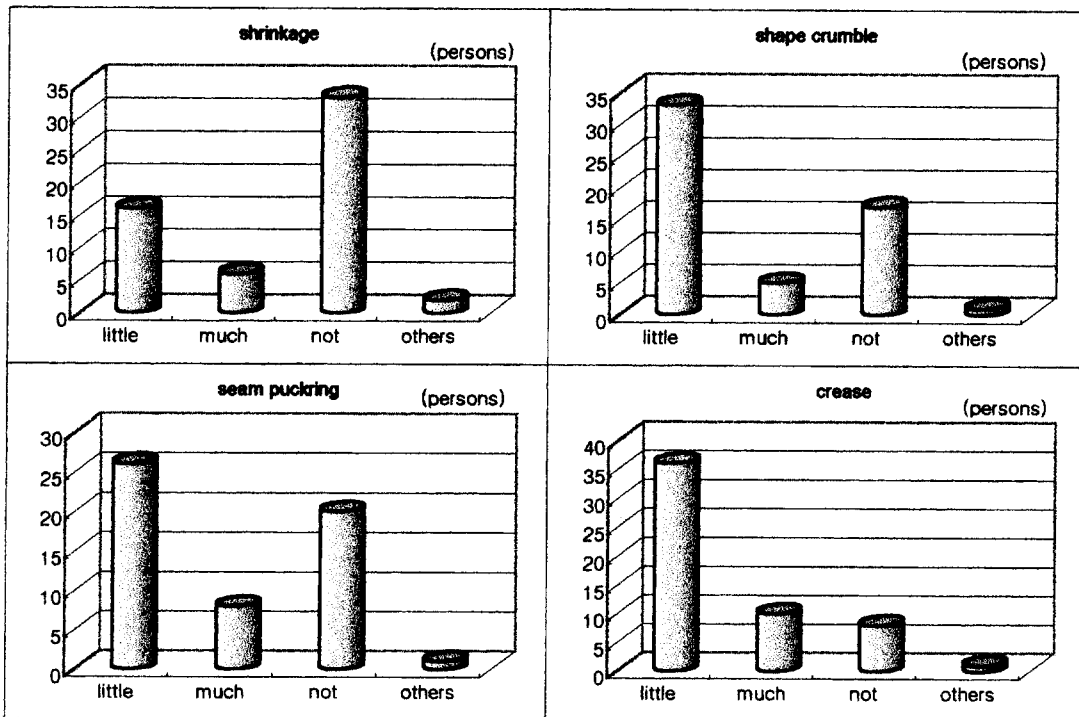


Fig. 5. The effects of shape retention finished clothes compare to unfinished.

3.4. 형태안정가공을 행한 의류제품에 대한 조사

의류 제품의 형태안정가공에 대한 인식도에서는 형태유지를 위한 가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286명(52%)이 응답하였으며, 모르고 있다는 것에 266명(48%)이 응답하여 형태유지를 위한 특수가공의 인식도가 생각보다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형태안정가공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소문으로 알게 된 경우와 잡지, 의복 라벨, TV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응답도 다수 있었다. 본 설문에 응답한 조사 대상자에는 의류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이 많이 참

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의복의 형태안정을 위한 특수가공을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의 실제 비율은 50%미만이 되리라 추측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비자 정보로서 홍보 및 품질 보증활동은 더욱이 필요하다 하겠다.

‘형태안정가공을 행한 의류제품을 착용해 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형태안정가공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결과 186명이 착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0명은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형태안정가공을 한 의복을 착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어떤 의복을 착용해 보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결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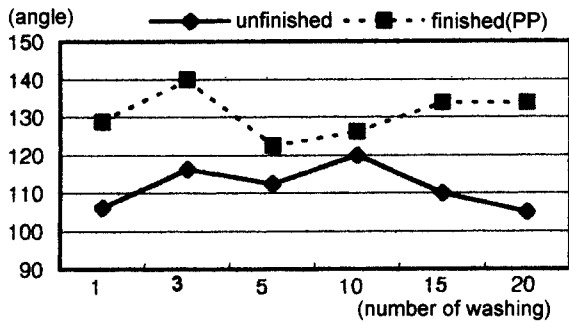


Fig. 6. Wrinkle resistance effects by washing.

Y셔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블라우스, 스포츠 셔츠, T셔츠의 순으로 나타났다.

착용해 본 의류를 구입한 장소에 대한 결과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백화점이나 의류 전문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양판점이나 통신판매, 기타의 응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안정가공을 한 의류에 대한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선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높은 가격선에 많은 응답자가 답한 것으로 나타나 형태안정가공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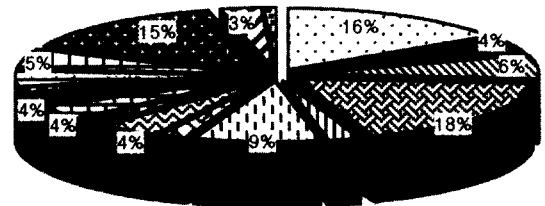
형태안정가공을 한 의류 제품에 대한 세탁방법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가정세탁이 59%, 세탁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41%로 나타났다.

Fig. 5는 일반 의류제품에 비교해 형태안정가공을 한 의류제품의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수축에 대한 정도는 '차이가 없음'에 많이 답했고, 형무너짐에 있어서는 '조금'이 많았다. 재봉선의 주름에 대해서는 '조금'과 '차이가 없음'에 많이 답했으며, 구김에서는 '조금'과 '차이 없음'에 많이 답하였다. 또한 의복 전체의 형태 유지성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와 '그저 그렇다'에 많이 답해 전체적으로 형태안정가공을 한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Fig. 6은 일반 직물과 형태안정가공 직물에 대한 방추도 측정 실험결과로 세탁회수와 관계없이 형태안정가공을 행한 의류제품의 방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가 인정되었다.

형태안정가공 제품에 대한 가격의 적합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36명(33%)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0명(9%)은 '적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4명(5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형태안정가공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판단 기준이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의류제품과 형태안정가공 제품의 적정가격차에서는 5,000원 이하가 21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5,001~10,000원이 36명, 10,001~15,000원이 20명, 15,001~20,000원이 6명, 그 이상이 4명으로 응답해 가격차가 많아질수록 응답자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소비자의 소비 심리적인 원인이 있으나 아직까지 형태안정가공 제품에 대한 가



□ suit	■ workwear	▨ nursing wear	▩ uniform
▤ children wear	▥ sweater	▧ underwear(M)	▨ underwear(F)
▩ socks	▫ scarf	▬ night clothes	▭ apron
▮ table cover	▯ seat cover	▰ skirt	▱ patient wear
▲ others			

Fig. 7. The products need shape retention finishing.

치 인식도가 낮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위의 4가지 기본 의류 제품 외에 형태안정가공이 필요한 의류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에서는 슈트와 교복, 스커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스웨터, 간호복, 병원복, 시트 커버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7).

이상에서와 같이 형태안정가공은 모든 의류제품에 요구되는 가공이라 할 수 있으며, 세탁 및 다림질이 자주 요구되는 제품일수록 그 요구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Easy care성이 부각되는 최근에 있어서 가공의 범용성은 증대될 것으로 여겨진다.

4. 결 론

이상의 형태안정가공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류제품에 대한 착용상황 조사에서 평일과 휴일에 관계 없이 T셔츠의 착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 대상에 사회성이 낮은 여성과 학생의 참여가 많은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일반 의류 제품에 있어 세탁에 의한 구김과 다림질에 대해 많은 소비자가 불만족을 보이고 있어 형태안정가공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형태안정가공을 인지하는 소비자는 52%였으며, 이중 가공명을 형태안정가공으로 인지하는 응답자는 45%, 형상기억가공으로 인지하는 응답자는 13%로서 형태안정가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형태안정 가공제품의 성능만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차후 발전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5. 형태안정가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의류품으로는 교복> 슈트>스커트 등의 순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공 비율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6. 다림질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조사에서 프릴, 개더, 단추 부분, 플리츠, 포켓, 플라이 프론트 등의 응답이 많이 나타나 이러한 부분의 디테일로 구성된 의복생산시 소비자들의 이치케

어성을 위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형태안정 가공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격이나 품질 판정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업체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 및 품질보증을 강화하여 평가기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MODERN TEXTILE (1995) 형태안정가공(II)-국내현황-. *MODERN TEXTILE*, 4, 47-52.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999) 형태안정가공의 개발 경위. *섬유개발연구*, 13(2), 71-77.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999) 형태안정가공. *섬유개발연구*, 11(8), 45-

56.
 日比 暉 (1994) 天然纖維の形狀保持-綿の形態安定加工. *纖維學會誌*, 50(10), 553-558.
 노덕길 (1995) 최근 Cellulose系 纖維의 形態安定 加工技術(II). *한국염색가공학회지*, 7(1), 99-108.
 塩原みゆき (1994) 使用者の立場からみたイーージーケア製品. *纖維と工業*, 50(10), 564-568.
 山崎義一 (1995) 纖維製品の形狀記憶加工について. *日本家政學會誌*, 46(3), 287-289.
 山本和秀 (1994) 形態安定加工「プリエコット」. *纖維機械學會誌*, 47(12), 524-531.

(1999년 9월 20일 접수)